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는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합동 점검 실시
-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이하 ‘성평등부’)는 11월 28일(금)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식료품 제조공장을 찾아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10.28.)」을 토대로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으면서 끼임 사고 등 제조 공정상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점검했다.

당해 사업장은 끼임사고 등 최근 5년간 산재사고가 23건(부상) 발생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점검 시에도 ▲덮개 안전장치 미설치, ▲제품운송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근골격계 예방조치 미실시 등 다수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되었다.

합동점검을 마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자본이자, 모두를 위한 투자다. 기업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노동부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 안전한일터 지킴이 등 내년도 산재예방 예산으로 1조 6천억원을 반영한 만큼, 사업장에서 안전제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는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위험 외에도 성희롱과 성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성평등 가족부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 특히 오늘 현장에서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줄 수 있도록 작업복에 명찰을 붙여 준 모습이 인상 깊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이 곧 나라의 품격이다. 국적, 성별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이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곧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10.28.(화)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업무의 현장안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희롱·성차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연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 등도 협력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일터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경민 (044-202-888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정탁 (044-202-8881) 이근배 (044-202-8882)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사무관	위수환 (044-202-7503)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 경제활동촉진과	책임자	과 장	이수림 (02-2100-6621)
		담당자	사무관	전진희 (02-2100-6622)

